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본당주소: Holy Family Church 584 W. Broad St. Columbus, OH 43215
 홈페이지: <http://www.kcolumbus.org>
 주임신부: 김충귀(베드로) 신부 (badackk@yahoo.co.kr 614-961-0980)
 총회장: 이봉모(바오로) (614-766-1990) 부회장: 최영자(레지나) (614-855-2167)

본당 소식

◆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입니다. 단식과 금욕을 통해 우리 교우들보다 절제된 생활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에 동참하는 복된 사순 시기를 맞도록 합시다.

◆ 2008 교무금 책정 및 납부 안내

- 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고, 신앙인으로서 의무임을 잊지 않고 모든 교우들이 예외 없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서에 기입하셔서 재정위원장 김 세실리아 자매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사단 참고 시험이 오늘 미사 후 Parish Center 내 사제 집무실에서 있습니다.

◆ 사순 기간 2 차 헌금

빈첸시오회 기금마련과 불우이웃 돕기를 위해 사순 2 주일, 사순 5 주일 미사 중 2 차 헌금을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목평의회

- 일시: 오늘 미사 후
- 장소: Parish Center

- ◆ 성가대에서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박영주 마리아 단장 (614-315-859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Tax Report 를 위한 **헌금 증명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매월 둘째 주일 미사후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부모님께서는 최규선 루치아노 형제님(614-302-3708)에게 문의하십시오
- ◆ 주일 학교 봉사자
 - 2월 24일: 안유신
 - 3월 2일: 인영범
- ◆ 친교 봉사자
 - 2월 24일: 정수연 최민정
 - 3월 2일: 이가람 전경화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주 일 헌 금	\$543.00
교 무 금	
2 차 헌 금	\$272.00

• 교 무 금: 김도형



천주교 콜럼버스 교구 한인성당

The Korean Catholic Church of the Diocese of Columbus

기도하고 일하라

사순 제3주일 February 24, 2008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두초 (Duccio, 1255-1319), 템페라, 티센 보르네미자 컬렉션, 마드리드 스페인

“숫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탈출기 17,3-7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화답송



제 2 독서 로마서 5,1-2. 5-8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복음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요한 4,5-42
“숫아오르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

- 지향1)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
- 지향2) 공동체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
- 지향3) 공동체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

구역	지난 주일	합계
김제준	단 명	1,180단 10명
이호영	140단 2명	7,155단 61명
정하상	단 명	3,485단 77명
황석두	170단 2명	4,940단 51명
김효임	단 명	1046단 27명
유대철	단 명	단 명
미사중	단 명	12,109단 10,315명
	310단 4명	2/22/04 - 2/17/08 (208주)

총누계: 194,205단 12,634명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



봉사자 안내

	2월 24일	3월 2일
해설자	곽광주	고상식
독서/봉헌	이도근 이선화 정하상 구역	이호영 구역
보편지향 기도	십자가의 모후	평화의 모후

오늘의 성가

입당: 34 봉헌: 217
성체: 153 166 파견: 125

만남

고준석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서울대교구

만남에는 3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먼저, 생선 같은 만남이다. 이 만남은 비린내 나는 생선처럼 만지기만 하면 역겨운 비린내가 배어 버리는 만남을 말한다. 다시 말해 만나면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이다.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부패한 냄새를 풍기게 된다.

둘째, 꽃과 같은 만남이다. 이것은 만나면 향기가 나고 좋아 어쩔 줄 모르지만 금세 시드는 만남을 말한다. 풀은 쉬 마르고 꽃은 10 일을 넘지 못한다. 꽃과 같은 만남은 풋사랑을 의미하고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만남을 의미한다.

셋째,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 주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인 양 축하하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 주며 언제나 함께 하는 만남을 말한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와 같은 만남이요. 한 번의 만남으로 삶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운명적인 만남이다.

같은 만남이 있다. 오늘 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다.

한 여인이 있었다. 이 여인은 남편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다. 사는 것이 답답하고 허무하고 우울했다. 여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 목마름은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이었다. 그래서 그 허전함과 갈증을 채우려고 남자를 다섯 명이나 바꿔보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목이 말랐다. 여전히 그녀의 삶은 어둡고 허전하기만 했다.

이제 여인은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로 물을 길으러 간다. 그 곳에서 여인은 운명적인 만남을 갖는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갈증을 느끼셔서 우물을 찾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목마른 여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요한 4,14).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요한 4,15). 육적인 갈증을 해결할 우물가의 물이 아닌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물을 찾던 여인의 간절한 외침이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지 서서히 알아가고 자신의 그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자기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요한 4,29)라는 말을 하게 된다.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그럴듯이 우리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리는 참된 삶에 목말라하고 있다. 그 목마름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샘이시기 때문이다.